



“대정인의 다짐 새기며 고향 사랑 앞장선다”



«> 재경대정읍민회

1968년 발족... 올해로 55년 수도권 회원 수만 1만 여명 단합·단결의 '뫼생이' 기질

재경대정향우회는 1968년 5월 12일 발족, 지난 50여 년간 대정읍 출신 제주인들이 서울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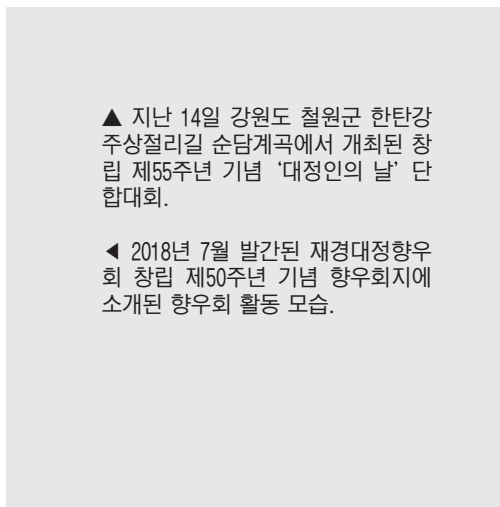
1960년대 초 서울에 거주하는 소수의 대정출신 인사들은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해 보자는 소박한 마음에서 '대정친목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인 대정친목회 일원들은 주변에 대정출신을 수소문했고 25명의 회원을 발굴, 재경대정향우회를 창립했다.

강달용, 김태능, 진대식, 변신홍, 양상수, 윤평석, 고달성, 양근희 씨 등이 당시 재경대정향우회 창립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들이다. 올해 55주년을 맞은 재경대정향우회는 서울 수도권 회원 수만 1만여 명(3000세대)에 이른다.

재경대정향우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8년 7월에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당시 제주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 이들의 변함없는 고향 사랑을 응원했다.

이때 50주년을 기념해 재경대정향우회지도 발간했다. 이 자료에는 대정읍의 역사와 향우회 활동 상황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대정읍을 '학문·예절의 큰 고을'로 소개한 향우회지에는 대정읍 관내도, 읍면혁, 일반 현황과 함께 추사유배지, 대정현성, 송악산 등 관광지와 읍내 전적지 등이 소개됐다.



▲ 지난 14일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주상절리길 순담계곡에서 개최된 창립 제55주년 기념 '대정인의 날' 단합대회.

▲ 2018년 7월 발간된 재경대정향우회 창립 제50주년 기념 향우회지에 소개된 향우회 활동 모습.

허영준 재경대정향우회 고문은 50주년 기념 재경대정향우회에서 “대한민국의 최남단 대정읍 사람들은 학문과 예술을 숭상하고, 정의감이 투철하다”며 “대정읍 모습에 있는 일제 전쟁 유적은 고향의 시대를 반추하게 하며,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최남단방어축제 등 축제의 고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향우회는 4가지 '대정인의 다짐'을 회원들이 새기도록 하고 있다. '서로 칭찬하고 먼저 돕는 향우회 정신을 드높인다', '향토사랑에 앞장서 고향의 농수산물을 우선 애용하고, 고향발전에 솔선수범한다', '예절을 지키고 선배를 존경하며 후배를 사랑한다', '하나로 뭉치는 대정의 정신으로 화합해 대정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인다'가 그것이다.

실제 향우회는 1979년 대정고등학교 이전사업, 1990년 송악도서관 신축사업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했

고, 대정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대정읍지 발간 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제주도민장터 개설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경대정향우회 회원들은 서울 제주도민회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서울제주도민회 23·24대 회장을 지낸 고 송창우 회장은 도민회 장학기금 조성에 앞장섰고, 재경대정향우회 39대 회장을 역임한 허능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제주도민회 3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재경대정향우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31회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에서 회원 380여 명이 참가해 전 종목 1위, 종합 1위 우승도 기록했다. 이같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은 상모리, 하모리, 동일리, 일

과리, 영락리, 신도리, 무릉리, 가파리, 신평리, 구역리, 대정고을 등 11개 지역향우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재경대정향우회는 또 대정포럼, 재경대정고동문회, 대정체육동우회, 대정산악회 등과도 단합해왔다.

재경대정향우회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대정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는 지난해 6월 재개됐고, 지난 14일에도 한탄강 돌레길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의 날 행사를 가졌다.

허인창 40대 재경대정향우회장은 17일 “대정은 타 지역에 비해 '뫼생이' 기질이 있어 단결, 단합된 힘이 대단하다”며 “오는 6월 2일 마농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향우회도 참여할 예정이며 도민장터를 구축 중인 서울제주도민회와 제주마농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민회와 협조해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미현기자

영화觀

돌아가는 일

떠나온 길을 되짚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이어 한국의 극장가를 찾았다. 안소니 심 감독의 '라이스 보이 슬립스'와 데이비 추 감독의 '리턴 투 서울' 두 편은 모두 '다시, 한국'을 찾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작품 속 한국을 찾는 이들의 사연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 나를 나답게 만드는 순간들의 정렬. 두 영화는 다른 경로를 택하지만 목적지는 동일하다. 바야흐로 돌아가고 돌아오는 이들의 발자국을 통해 자기 앞의 생을 발견하는 고단함과 벽참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의 방문이다.

'라이스 보이 슬립스'는 오래 우려낸 국 같은 맛을 느끼게 하는 영화다. 1990년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택한 엄마 소영과 아들 동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이민자의 삶과 이방인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관찰하며 보는 이들을 극 중 인물의 삶 결로 당겨 앉히는 영화다.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고단함과 익숙한 땅을 그리워하는 간절함이 교차하는 엄마 소영의 안쓰러운 처지, 엄마와 같지만 또 다르게 이민 2세대로 삶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들 동현의 모습은 여러 차례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영화는 이들의 처지를 쉽게 낙담하거나 선불리 비관하지 않는다. 소영이라는 인상의 캐리커와 캐리커를 체화한 배우 김승운의 호연 덕에 타국에서 다시 타국으로 향하는 '라이스 보이 슬립스'의 여정은 용기의 뒤를 밀어주는 바람의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듯 생동감이 넘친다.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프랑스인 배우 박지민이 출연한 영화 '리턴 투 서울'은 제목 그대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프레디의 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어린 시절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인 여성 프레디가 성인이 되어 자신이 태어난 곳, 한국의 서울과 군산을 찾는다. 관객들은 영화가 지속될수록 점점 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프레디를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영화의 묘미가 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굳이 '누군가의 누군가'가 될 이유가 없음을 영화는 보여준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프레디의 결정과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지만 나와 다른 누군가의 선택이 뻗어나가는 행로를 바라보며 내 삶의 변곡점들을 돌아보게 된다. '리턴 투 서울'은 그렇게 타인의 여정을 통해 나의 지난 경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라이스 보이 슬립스'와 '리턴 투 서울' 두 작품은 모두 힘과 공을 들여 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여정을 감행하는 작품들이다. 두 작품을 만든 이들이 그렇듯 이 영화 역시 정확히 어딘가에 속해있다고 구분 짓기 어려운 작품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영화들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정보 이상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 체험에는 당연히 보는 이의 삶이 가장 구체적인 준비물이 될 것이다.



영화 '라이스 보이 슬립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100년 전통의 “興國文民” 건학이념 - 濟州高! 힘을 모아 하나로! 꿈을 모아 미래로!

第31回 濟州高 한마당

■ 일시(개회식) : 2023년 5월 28일(일) 10:00 ■ 장소 : 모교 잔디구장(우천시 사자관)

성화채화

- 전농로, 제주고의 옛터 표석 제막식
- 채화일시 2023년 5월 28일(일) 08:00
- 채화장소 제주융합과학연구원(모교 옛터)

대회장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총괄본부장
 제주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신영민	 제주고등학교 제80회 박원양	 제주고등학교 제80회 신경진	 제주고등학교 제80회 김동권

식전행사(09:00)

경기종목

이벤트

난타공연

에어봉달리기, 줄다리기, 골프대회(번외경기)

노래와 춤, 내가 최고야, 동문 초청가수, 가수초청, 경품추첨

힘과 꿈을 모아 한마당에 정중히 초대하오니 많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대상 : 전 동문 및 동문 가족·내외빈 ☞ 경품 및 기념품 증정

상향본부장 진성욱 총무본부장 김덕홍 기획본부장 이승윤 재무본부장 양수희 행사진행본부장 강공대 총괄사회자 김구한 양수희

· 총동창회 사무처장 강현우 010-6866-9669 · 상황실 사무국장 김중환 010-5049-6121 · 상황실 745-1907 FAX 745-1908